

“고유가 시대...에너지위기 뚫어라” 모토 시리즈 ⑨

사상 최고 유가 대안 없나
두바이 42달러-WTI 51달러선 경총

유가 3월1일 현재

두바이 42.80달러-WTI 51.63달러-브렌트 50.06달러
OPEC 3.16 이란총회가 관건 고공행진 이어질 듯
비축유 확대-다소비사업장 등 기술개발 지원 주력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우고 있는 가운데 국가나 기업, 나아가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 3월1일 현재 국제유가는 두바이 42.80달러, WTI 51.63달러, 브렌트 50.06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최근 불안했던 금융시장이 환율쇼크에서 벗어나 급속히 안정국면으로 접어들자마자 국제유가는 연일 치솟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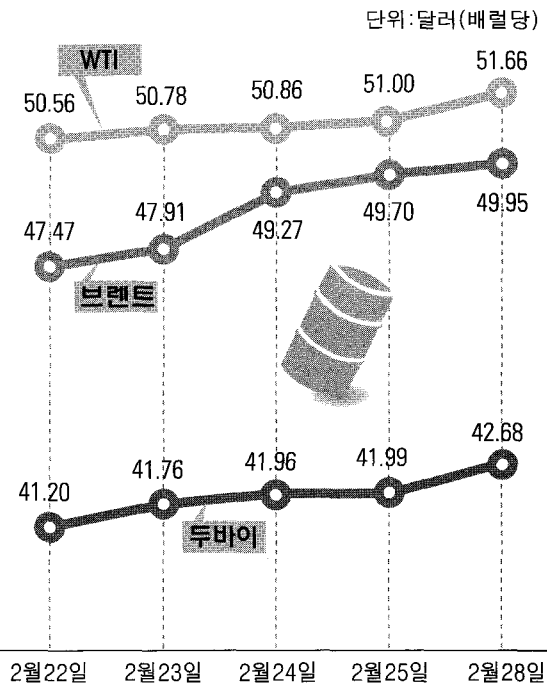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해 오다보니 석유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동산 두바이유는 2월 말 거래기준 배럴당 42.68달러를 기록했다. 이 역시 사상 최고치다.

국제유가가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최근의 이유는 달러화 약세가 주요인이다. 원유시장의 결제 통화가 미국 달러화이다 보니 주요 산유국들이 손실 보전을 위해 감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동북부지역의 한파에 이은 세계 원유 하루소비량이 예상치 120만 배럴을 훨씬 뛰어넘는 170만 배럴까지 급증한데 겹쳐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은 배럴당 50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중동산 두바이 유가도 2004년 말 34.58달러에서 3월 1일 현재 43달러까지 육박하는 등

급등했다. 앞으로 유가의 향방은 이달 16일 이란에서 열리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총회가 관건이다. 감산여부를 가늠하기 때문이다. 감산 여부가 결정나는 OPEC총회 때까지는 국제유가가 불안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상 최고유가 시대를 맞아 앞으로 기업들도 이에 대비, 생

■ 국제유가추이 _ 현물가 기준





산공정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기업으로 체질을 바꾸고,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도 몸소 먼저 실천해야만 고공의 유가파고를 다함께 넘을 수 있게 됐다.

환율 급락의 경우, 업종별로 명암이 갈리는 반면 국제유가 급등은 자동차·항공·정유·운송 등 거의 모든 기업체에 영향을 끼친다.

국제유가가 1달러 오르면 우리나라 국제수지는 통상 8억 달러, 경제성장률은 0.15%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돼 경제운용에도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4.0%로 전망하면서 전제한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34달러였다. 예상치를 넘어도 크게 남은 상태이다.

항공업계의 경우, 원화환율이 달러당 1원 떨어지면 연간 순이익이 5억 4000만원 감소에 그치는 반면, WTI가 배럴당 1달러 오르면 연간 순이익이 150억원이나 줄어든다.

대표적 수출기업 현대차는 환율(1050원)과 두바이유(36달러)가 올해 경영계획을 짤 때 전제했던 추정치에서 벗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고통은 더욱 크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4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두바이유 수준은 배럴당 평균 39.9달러로 나타났다. 배럴당 평균 48.0달러가 되면 기업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의 유가는 채산성 급강하를 지나 기업경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 **급등 배경**

지난해 국제 유가가 상승할 때 마다 증산을 단행, 유가 안정을 주도해온 사우디아라비아가 올해는 고유가를 지지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자마자 유가는 지난달 말게 급등세를 타기 시작했다.

런던의 세계적인 석유산업 분석기관인 에너지연구센터

(CGES)는 최근 월례 보고서를 통해 석유 초과수요가 계속되고 있다며 유가 안정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사우디가 올해는 재정수입증대를 위해 고유가에 편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에서 유전 투자 증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산유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는 사우디의 약속이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CGES는 지난 겨울 미국 동북부에 닥친 한파 때문에 서부 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이 배럴당 49달러까지 오르는 등 연초부터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올해도 유가가 고공비행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은 적정 유가 밴드를 배럴당 22~28달러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재정지출 수요를 고려할 때 이는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고 CGES는 예상했다. 특히 사우디는 유가가 배럴당 35달러는 돼야 올해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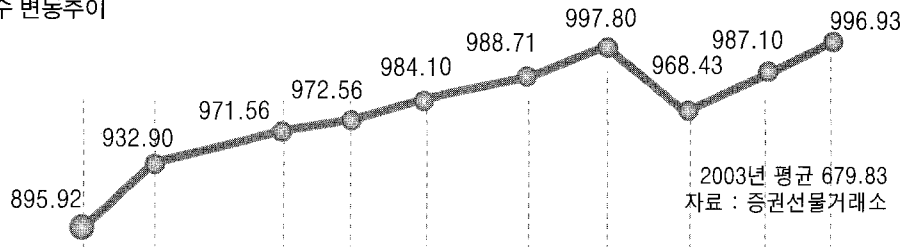
이와 함께 유황 함량이 많은 중등산 석유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북해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40달러를 상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보고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의 말 한마디가 유가급등의 기폭제가 됐다. 알리 알 나이미 장관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유가는 배럴당 40~50달러 선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배럴당 50달러는 너무 높다.”고 말해온 그였기에, 세계석유시장은 이를 “기름 값 상승 용인”의 의지로 받아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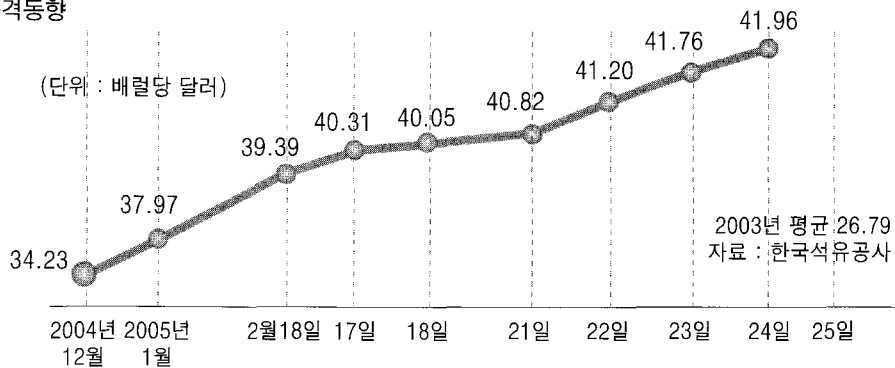
여기에는 미국 동북부지역의 한파와 세계경기 호조에 따른 기름 수요 증가, 이라크 변수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던 국제유가에 아예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다.

물론 미국의 재고 원유가 늘고 있고,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추가 감산을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도 있다. 하지만 감산 여부가 결정 나는 이달 16일 OPEC 이란총회 때까지는 국제유가가 불안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 ■ 종합주가지수 변동추이



■ ■ ■ 두바이유 가격동향



만약 산유국들이 달러화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감산을 결의할 경우 국제유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 최근 유가 추이

중동산 두바이유가 지난 80년 2차 오일쇼크 당시 가격을 넘어 현물거래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달 28일 현지에서 거래된 두바이유는 미국 동북부 지역의 한파지속 예보와 달러화 약세로 인한 투기자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전날보다 0.69달러 오른 배럴당 42.68달러에 장을 마쳤다.

이는 2차 오일쇼크 당시인 지난 80년 11월24일 42.25달러보다 0.43달러 높은 가격으로 두바이유 현물거래가 시작된 이후 최고가다.

10일 이동평균가격이 40.95달러에 달한 두바이유는 20일 이동평균가격도 39.80달러로 40달러에 육박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배럴당 51.66달러로 0.66달러 올랐고 북해산 브렌트유도 49.95달러로 0.25달러 상승하며 지난해 10월 28일 50.11달러를 기록한 이후 4개월만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선물가도 상승세를 지속했는데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WTI와 런던 국제석유거래소(IPE)의 브렌트유는 각각 0.26달러, 0.45달러 오른 51.75달러, 50.06달러에 거래가 마감됐다.

전 유종에 걸친 유가 상승속에서도 특히 두바이유 가격이 크게 오르며 지난해 말 한때 15달러 이상 격차가 벌어졌던 WTI와 두바이유 현물 가격차가 8.98달러까지 줄어들었다.

석유공사측은 "석유수출기구 의장의 유가 안정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 동북부 지역의 한파지속 예보와 최근 미국 달러화 약세로 인한 투기자금 유입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



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동부 해안 지역의 폭설 및 한파지속 예보에 따라 난방유 재고가 지난해보다 7% 가량 낮은 수준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국제 석유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수주간 정체불명의 헤지펀드들이 석유 선물시장에 대거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가 급등세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루 지나 3월 들어 첫날 산유량 감축이 없을 것이라는 OPEC 사무총장의 언급과 미국의 한파 등 엇갈리는 재료 속에 국제유가가 보합세를 나타냈다.

3월1일 미국 뉴욕에서 WTI 가격은 전날에 비해 배럴당 7센트 하락한 51.68달러에 마감됐다.

그러나 영국 런던에서 4월 브렌트유는 전날에 비해 배럴당 5센트 오른 50.11달러에 장을 마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오는 16일 열리는 OPEC 각료회의에서 감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OPEC사무총장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WTI 4월물은 한때 배럴당 50.65달러까지 떨어졌으나 미국 동북부 지역의 추위가 당분간 계속돼 난방유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반등했다.

석유시장 분석가들은 한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투기성 자본의 유입도 이어지고 있으나 겨울이 끝나가고 있는데다 OPEC의 생산량 유지 결정에 대한 기대도 있어 큰 변수가 없다면 당분간 국제유가는 배럴당 50달러선을 경계로 오르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훨씬 앞서 지난달 24일엔 두바이유 가격이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했다.

지난달 23일 현지거래 두바이유는 전날보다 0.56달러 오른 배럴당 41.76달러였다. 이는 지난 1980년 11월 24일 42.25달러를 기록한 이후 2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WTI도 0.22달러 오른 50.78달러로 이틀 연속 50달러를 웃돌며 3개월여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어 24일의 두바이유는 전날보다 0.20달러 오른 배럴당

41.96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80년 11월 24일 42.25달러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브렌트유도 전날보다 1.36달러 급등한 49.27달러를 기록, 작년 10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 WTI도 0.08달러 상승한 50.86달러를 기록했다.

이날 유가 상승은 사우디 석유장관이 올해 유가가 배럴당 40~50달러 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유가 목표치를 상향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북미 및 유럽지역에 추위가 엄습할 것이라는 예보도 유가 상승의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24일 뉴욕현지 기준 WTI는 미국의 지난해 4.4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웃돌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배럴당 0.14달러 상승한 51.00달러로 작년 10월 이후 4개월 만에 51달러대에 재진입했다.

미국과 중국의 소비증가 예상과 미국 동북부 지역 한파 예보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갔다.

25일 현지에서 거래된 중동산 두바이유는 전날보다 0.03달러 오른 배럴당 41.99달러로 42달러선에 육박하며 10일 이동평균가격도 40.60달러를 기록했다.

WTI는 0.14달러 상승한 51.00달러로 작년 10월 이후 4개월 만에 51달러대에 재진입했으며, 브렌트유도 49.70달러로 0.43달러 오른 채 장을 마쳤다.

뉴욕의 WTI와 런던의 브렌트유 선물가는 각각 0.10달러, 0.17달러 오른 51.49달러, 49.61달러로 소폭의 오름세를 지속했다.

OPEC이 유가 억제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미국과 중국의 석유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이어갔다.

24일 현지에서 거래된 중동산 두바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장관의 고유가 전망 등의 영향으로 전날보다 0.20달러 오른 배럴당 41.96달러로 지난 80년 11월24일 42.25달러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주 평균가보다 2.30달러, 지난달 평균보다는

3.99달러나 높은 가격으로 10일 이동평균 가격이 40.30달러, 20일 이동평균가격은 39.64달러에 달했다.

북해산 브렌트유도 전날보다 1.36달러 급등한 49.27달러로 작년 10월이후 4개월만에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됐으며,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50.86달러로 0.08달러 상승했다.

선물가격도 올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WTI와 런던 국제석유거래소(ICE)의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각각 0.22달러, 0.93달러 오른 51.39달러, 49.44달러에 장을 마쳤다.

국제유가는 3월에도 미국 동부지역의 한파가 예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OPEC의 감산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현재 미국의 원유재고가 증가하는 등 수급상황이 나쁘지 않은 만큼 OPEC 회원국들의 감산 여부가 드러날 이달 16일 OPEC 총회가 유가 안정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상승 지속 예상

전문가들은 국제유가가 4개월 만에 51달러에 진입했으나

3월 들어서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이 전문가 54명을 대상으로 다음주 유가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상승을 예상한 응답자는 28명(52%)이었다.

반면 하락할 것으로 내다본 전문가는 13명(24%)에 불과했고 나머지 13명(24%)은 보합세를 점쳤다.

지난 설문조사에서 상승을 예상했던 응답자 비율은 44%로 유가 강세를 전망한 응답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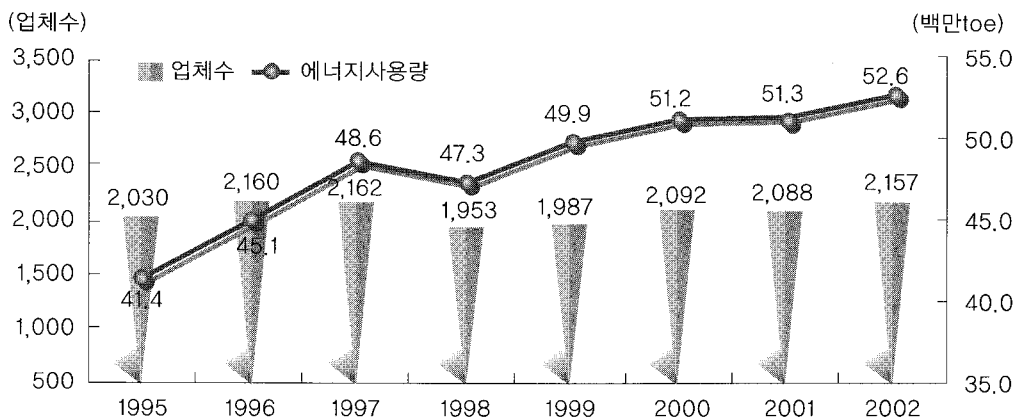
블룸버그는 전문가들이 석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 정부 대책

기존 절감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정책의 타이밍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 '국제유가 모니터링팀' 과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 를 중심으로 일일 국제유가와 석유시장 동향을 점검·분석하고, 고유가가 지속되자 다각적인 안정대책을 검토 중이다.

우선 산자부는 지난해 10월부터 OPEC의 하루 100만 배럴 감산유지 결정에 따라 2,100여개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대한 에너지 절감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에너지절약대책을

■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에너지 사용량 증가율 추이





속속 실현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상황처럼 시장에서 수급차질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 안정대책 위주로 추진하고 강제적 소비절약은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세부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에너지사용량의 32.8%를 차지하는 2157개의 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절약 효과가 큰 혁신공정투자자에 대해 투자액의 7%를 세액공제토록 하고, '초에너지절약형건물'을 집중 보급하기 위해 건축법상 일정범위를 넘는 건축비용에 대해 전액 용자 지원해 오고 있다.

또한 초에너지절약형 건물에 사용되는 고효율 건축기자재에 대해 투자세액 공제7%도 대상에 포함하고, 나아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공정투자'와 '고효율 건축기자재'의 범위와 대상은 추후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662억 기술개발 지원 ▶▶ 이와 함께 기후변화협약 대응 및 에너지원(原)단위 개선 3개년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력 확보를 위해 올해 기술개발에 610억원, 기술인력양성에 52억원 등 총 662억원 규모의 에너지·자원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을 시행기로 했다.

기술개발 중 전년에 비해 50% 이상 증액된 에너지절약기술(380억원)은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 경제성 및 에너지절약 잠재량이 우수한 스타급 프로젝트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스타급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효율 제품을 개발(E-Top 프로그램)하는 것을 포함한 Tiny CHPs, Premium Motors, Super Heaters 등 중·대형과제이다.

이 프로젝트의 청정에너지기술(90억원)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분리·이용, 연료이용 청정화 및 연소처리기술개발 등이 포함돼 있다.

전년에 비해 47% 이상 증액된 자원기술(121억원)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탐사기술 등의 확보와 기초

원료 소재의 기술 확보, 원료 소재화 기술개발에 중점 지원하며, 에너지기술 인력양성 등 기술기반조성(71억원)으로는 기후변화협약 협상력 강화, 에너지 관련 학술진흥의 다양화 및 국가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10개년 계획 수립 등이다.

한편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은 90년대부터 시작해 그 동안은 선진기술의 국산화에 초점을 맞춘 이래 우리나라 에너지 기술수준은 선진기술 대비 60% 정도(2003년 기준)로 약 6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R&D기획단 이미 운영 ▶▶ 산자부는 에너지기술은 기술개발 위험도가 크고 공공성이 강해 정부주도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분야임을 감안해 전력, 신재생 및 에너지·자원부문의 기술개발을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하기 위한 '에너지·자원R&D기획단'을 지난 1월 구성 이미 운영 중에 있다.

이 기획단은 올해 말까지 '국가 에너지·자원 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에너지산업으로서 육성이 가능한 에너지기술을 확보해 '자원은 수입하지만, 에너지기술은 수출하는 원년'으로 삼는데 일조한다.

동향 실시 체크 ▶▶ 고유가·내수부진 등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선제적이고 미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또 나아가 분야별 경제동향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희범 장관은 이와 관련 산자부와 연구기관, 업종별 단체, 지원기관 등이 위기의식을 갖고 공동으로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미시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아울러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구조가 에너지 다소비적 성격을 지닌 요인, 에너지 원단위가 높은 근본 이유, 유가 상승시 산업별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 자원기술개발 사업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	2004년 실적	2005년 계획	증가(%)
에너지 · 자원 기술개발 사업	432(100)	610(100%)	41.3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사업	252(58.4)	380(62.3)	50.8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사업	86(19.8)	90(14.8)	4.9
자원 기술개발 사업	82(19.0)	121(19.8)	47.6
기술기반 조성사업	8(1.8)	13(2.1)	64.3
평가관리비	4(1.0)	6(1.0)	45.2
에너지기술인력양성사업	52	52	0
총 계	484	662	36.8

비축유 확대 ▶▶ 석유공사는 고유가 대응과 관련 우리나라 전체 석유비축량(작년 8월말 기준)은 1억5,900만 배럴로 이는 IEA 기준으로 약 110일의 비축일수이나, 2008년도 정부비축계획이 완료되면 우리나라 전체 비축량은 약 2억3,800만 배럴로서 IEA 기준 약 135일분의 비축유를 확보하게 된다.

이 계획이 완료되는 2008년이면 국내 석유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준의 비축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고효율화 급박 ▶▶ 세계 최고 에너지고효율 국가는 어떤 나라일까. 세계 2위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일본이 그 주인공이다.

일본은 에너지 소비량을 가장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세계 최고 에너지고효율 국가' 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02년 현재 실질 국민소득(GDP) 1000달러를 생산키 위해 쓴 에너지량이 세계 최고 수

준인 원유 기준 0.09TOE(석유환산 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본이 1차 석유파동 이후 30여년 동안 에너지 효율화를 구현키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제도적인 지원에 민간의 호응이 덧붙여져 고효율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 73년 이후 제조업 생산과 GDP가 각각 57.7%, 11.4% 늘어났지만 제조업 에너지 소비는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편 우리나라는 에너지 원단위가 0.29TOE로 일본에 비해 3배가 넘는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고효율화에 매진해 에너지 원단위를 대폭 낮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 전기저널 편집팀 |

